

광주시의회, 내년 김치축제 예산 15억 전액 삭감

“공연·행사 위주 놓고 먹기 축제 안된다”

축제 관련 부서 일원화 등 구조조정 불가피

광주시의회가 내년도 광주세계김치문화축제 예산 15억5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5일 열린 문화관광정책실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김치축제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20년간 추진되어 온 김치축제가 매년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 산업화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되면서 예산 전액

삭감이라는 위기를 맞게 됐다.

지난달 광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김치축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박춘수(새정치·남구 3)의원은 이날 예산심의에서 “21년간 진행해 온 김치축제가 더는 축제를 통해 문화·산업·관광·학술 등을 융·복합하기엔 역부족이다”면서 “광주의 브랜드를 알리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산업화 등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

했다.

박 의원은 또 “일회성 축제에만 집중돼 있는 예산을 다시 편성, 김치타운 체험장, 박물관, 홍보관, 김치가공공장의 활성화에 투입하고, 세계김치연구소와 협력해 김치관련 학술 연구 등에도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원들은 시민의 세금이 공연이나 행사 위주로 놓고 마시며 즐기는 수준의 축제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행자위는 김치축제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라고 주문해 해결위에서의 예산 부활 가능성을 열어놓기는 했지만,

축제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김치축제가 축제 중심에서 산업화쪽으로 방향이 바뀌고, 북구 중외공원에서 열렸던 축제가 남구 김치타운으로 옮겨져 치러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치축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김치 관련 부서의 일원화도 거론되고 있다. 김치 관련 부서가 생명농업과 관광진흥과로 이원화돼 있는 것을 생명농업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세월호 피해 진도지원 특별법

군의회, 제정 결의안 채택

진도군의회는 25일 의원 전원 공동발의로 ‘세월호 침사 피해지역 진도군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진도군의회는 “세월호 침몰사고가 나자 모든 군민이 생업을 포기한 채 사고수습과 지원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진도경제는 날이 갈수록 파탄화하고 있다”면서 “지역경제의 지원 등 관련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난 7일 제정된 특별법에 진도군 피해지원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없다”면서 “진도 지원 등에 관한 후속 조치를 시급히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정가

반재신, 고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발의

광주시의회 반재신(새정치·북구1)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이 25일 의회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광주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시가 설립한 투자·출자·출연기관 등은 고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시의



대책에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시에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정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5 이상에 대해 고교 졸업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김옥자 “사학 교원 채용 전형 위탁은 월권”

광주시의회 김옥자(새정치·광산 3)의원은 25일 시 교육청에 대한 예산안 심의에서 “교원 신규 채용권을 교육청에 위탁한 학교법인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발상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 교육청은 교원 채용에 관한 전형을 위탁한 법인 4곳



을 뽑아 3000만원씩 1억2000만원을, 자체 전형과정인 우수한 법인 10곳을 선정해 200만원씩 2000만원을 주겠다고 예산을 편성했다.

/최권일기자 cki@



목포~순천구간 폐지 철회를

보성군의회 의원들이 25일 군의회에서 경전선 목포~순천구간 폐지 철회를 한국철도공사에 촉구하고 있다.

〈보성군의회 제공〉

경전선 목포~순천 폐지 반대 거세다

목포시의회, 반대 결의문

보성군의회, 철회 요구 성명

목포와 부산을 잇는 경전선 구간 중 목포~순천 구간 노선을 없애려는 철도공사 방침에 지역 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목포시의회는 25일 긴급 본회의를 열어 목포~부산 구간중 목포~순천 간 무궁화호 열차 운행 폐지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1968년 개통한 목포~순천 노선은 지역민의 생활과 경제 활동 등 교류역할에 중요한 통로이자 지역 균형 개발과 영호남 화합을 위해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철도공사가 적자노선과 수익성을 이유로 전날(24일)부터 목포와 부산을 연결하는 경전선 무궁화호 열차 구간

가운데 목포~순천 구간을 없애고 순천~부산 구간만 존치하도록 한 것은 지역민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다”면서 “공기업인 철도공사가 수익논리로 열차를 폐지한 것은 공익의 목적을 배제한 행위”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보성군의회도 25일 성명을 내고 경전선 목포~순천구간 폐지 철회를 한국철도공사에 강력히 요구했다. 군의회는 성명에서 “한국철도공사가 적자노선과 수익성을 이유로 경전선 구간을 단축한 것은 지역민의 의견을 무시한 것이며 공익목적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목포시도 지난 21일 목포~순천 간 경전선 열차는 전남 서부권이 남해안, 영남과 교류하는 데 꼭 필요한 노선이라며 노선 폐지 철회를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관계 부처에 발송했다.

/목포=임영준기자 lyc@
/보성=김용백기자 kyb@



한승원 칼럼

노르웨이에 갔더니 강도 바다도 호수도 아닌 ‘피오르드’라는 것이 있었다.

해발 0미터인 그것은 바닷물이 협곡으로 흘러든 것인데, 산 위의 방하 녹은 물이 흘러내려 염도가 현저하게 낮다. 비취빛인 그것은 그 나름의 독특한 생태환경으로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피오르드에서 뱃놀이를 즐기면서 내 고향 남도 산하의 젓줄 영산강을 생각했다.

강 앞에 서면 작가라는 사람도, 고기잡이를 하는 어부도, 물세도, 갈대숲 우거진 강 위를 흘러갔거나 지금 흐르고 있는 역사도 하나하나의 풍경이다.

지도를 펼쳐놓고 영산강을 보면, 한겨울철의 외사귀 모두 잃어버린 노거수 같다. 어머니바다(母海)인 목포 앞 바다에 거대한 줄기를 묻은 노거수는 무안·함평·영암·나주·광주·화순·장성·담양의 산하로 굽은 줄기들과 무수한 가는 가지(개천)들을 뻗고 있다.

그 가지를 사이사이에 내가 살피고 읽은 이런저런 역사적인 사건들과 혁

가 물에 잠기고 떠내려가는 재해를 입곤 했다.

해마다 여름철에 반복되는 홍수 재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역대 정부들은 몇 차례에 걸쳐 영산강 종합개발 사업을 펼쳤다. 홍수통제와, 농업용수와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위한 다목적댐(담양호, 장성호, 광주호, 나주호)을 건설하고 목포 앞바다에 거대한 영산강 하구 독을 축조했다.

그 종합개발(홍수통제) 사업으로 인해 영산강은 병들기 시작했고, 4대강 사업의 일환인 승촌보·축산보 건설로 인해 중병이 들었다. 흐르지 못한 강은 부영양화로 인해 시퍼런 물이끼가 끼었고, 악취를 풍긴다.

영산강 하구에서 축산보를 관통하여 승촌보까지 황포돛배를 띄우려 하지만 향기롭지도 아름답지도 않은 뱃길이므로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없다.

영산강은 홍수통제를 위하여 바닷물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으므로 병이 난 것이다. 예전에는 흑산도의 흥어배가 영산포까지 드나들었고, 자동차 길이 열리기 전에는 가관선이 목포에

빈사상태 영산강을 살리는 나의 처방전

혁한 인물들과 신화와 전설들이 주저리주저리 열리어 있다.

담양 영추산과 풍성산에서 시작되어 담양호와 장성호에 담겼다가 광주·화순·나주·영암·함평·무안을 거쳐 목포 앞바다로 흘러가는 영산강은 이 땅 사람들의 자존심과 자긍심의 한 표상이다.

이 강의 유역을 탐사하면서 많은 공부를 했고, 많은 것들을 깨달았다. 지금의 영산강은 우리민족이 누대에 걸쳐 살아왔고 현재 살고 있는 영옥의 문명과 문화의 가시적인 모양새이다.

다도해 지방으로 흘러가는 이 강의 유역은 한반도 안에 있는 어느 강(한강, 낙동강, 섬진강, 금강)의 유역들과 달리 경사가 완만하고 해발 0미터로 낮기 때문에, 영산강 하구 독이 막히기 이전에는 바닷물이 밀물을 타고 영산포와 나주와 광주시 광산구 상대동까지 들어왔다.

태풍으로 인해 폭우가 쏟아지고, 상해안, 영남과 교류하는 데 꼭 필요한 노선이라며 노선 폐지 철회를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관계 부처에 발송했다.

서 영산포 사이를 운항했었다.

강이 죽자, 강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곳에 자생하는 장어·쏘가리·가물치·메기·송어 등의 물고기들은 전멸하고 말았다. 영산강을 속속들이 탐사한 바 있는 나는 그 강을 살리는 길을 잘 알고 있다.

책은 내세 품기는 시화호를 살리기 위해 당국은 해수관문을 열고 바닷물을 유통시켰다.

영산강을 살리는 길도 그와 같다. 영산강 하구독에 설치한 관문을 활짝 열어, 바닷물이 밀물 썰물을 타고 영산강을 드나들게 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강의 굽이굽이에 홍수통제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바닷물이 농수로 타고 들어오지 못하게 갑문을 설치한 다음, 평시에는 바닷물이 자유자재로 유통되게 하고, 홍수가 질 때에는 관문을 닫아 바닷물이 강으로 흘러들 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승촌보·축산보를 철거해야 한다. 그러면 노르웨이의 피오르드 같은 아름다운 강이 될 것이고, 물고기들은 되살아날 것이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소설가>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1인당 한도 **최고 28억원**까지 가능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연말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임대보증금대출
 ☒ 정부정책자금대출

☒ 신용대출, 상가대출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서양새마을금고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2015학년도 수시합격자 및 예비 중국어과 입학생을 위한 중국어 기초 특강

12월

예비대학생 중국어 대 특강

●접수기간 : 11월 17일 ~ 11월 28일 ●개강일 : 12월 1일

대학생활 · 취업필수 남들보다 앞서 갈 수 있습니다. 중국어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특강대상

- ▶ 수능 응시생
- ▶ 중문과 예비 대학생
- ▶ 新HSK 중국어 자격증에 도전하고자 하는 분
- ▶ 입학 전 시간을 알차게 보내고 싶은 분

특강과정 2개월 중국어 기초 완성반

수강기간 || 12월1일 ~ 1월 30일

수강특징 || 2015학년도 대학 예비 입학생을 대상으로 구성된 소수정원제 그룹수업

입학 전 기초과정 총 정리 및 대학1년 과정 사전 학습

충분한 자극제, 유대관계 형성으로 학습 동기 부여

강의시간

매일반 ▶ 오후반 5시 ~ 6시

매일반 ▶ 저녁반 7시 ~ 8시

수강특전

1. 중국어 기초 단어쓰기 노트 무료증정
2. 수업교재 2권 무료증정

www.gotochina.co.kr

지금 전화주세요!!

시작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233-9582

(종) 구오팔리

GOChina 고차이나 중국어학원